

# SK케미칼-동신제약 합병 “긍정적”

현대증권, 생명과학부문 대폭 성장 기대 ... 바이오의약품 강화될 것

현대증권은 8월11일 SK케미칼에 대해 동신제약과의 합병으로 생명과학부문의 대폭 성장 및 수정 주당순이익(EPS) 증가가 예상돼 주가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라고 평가했다.

현대증권은 SK케미칼에 대한 매수 투자의견과 적정주가 5만700원을 유지했다.

김태형 애널리스트는 “동신제약과의 합병이 반영되는 2007년에는 생명과학부문의 매출 및 영업이익 비중이 각각 28.6%, 65.2%에 달해 주력사업부문으로 자리잡을 것”으로 내다봤다.

또 “SK케미칼은 국내 합성 의약품 및 천연물 의약품 분야에서 최상위권의 연구 성과를 냈으나 바이오의약품 부문은 취약했다”며 “그러나 혈액제와 백신 분야에서 국내 선두권인 동신제약과의 합병으로 바이오의약품 부문이 강화될 것”이라고 전망했다. (서울=연합뉴스) 고미혜 기자 <저작권자(c)연합뉴스-무단전재·재배포 금지>

<화학저널 2006/08/11>